

시론

대북 식량지원, 통일의 지름길

북한식량지원 민족애가 우선

민간단체 운동만으로 한계...조건부 4자회담 철회돼야

홍상영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 기획조정실 간사)

올들어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소식이 부쩍 많이 들려온다. 소식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뽐낸다. 최근 북한식량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온 미국의 홀 하원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약 6백만명에서 8백만명의 주민들이 아사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증언했고 비슷한 시기에 방북했던 UN 세계식량계획(WFP)의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 역시 "굶 굶의 모든 식량이 완전히 동이 날 것"이라고 증언했다. 참으로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은 '1백34명의 어린이들이 굶어죽었다'고 공식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 몸을 팔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매혈을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평양 동물원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동물원의 동물들을 잡아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UN, 미국정부, 한국정부 등이 예측하고 북한정부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약 2백~2백30여만톤에 이른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5~6개월치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통개상으로서는 북한이 올 10월에 추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4~5월이면 모든 식량이 완전히 바닥



▲부족한 식량배급으로 성장이 부진한 북한아이들(사진: 한겨레21)

닥이 나 외부에서 지원이 없는 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주민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금수산기념궁전'을 건립한다니 하며 김일성부자 성역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당국에 대해 개탄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북한정권이 이러하니 '북의 자조·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왜 돕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 굶주리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잘못을 탓하며 북한동포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결국 수백만의 우리 동포들이 희생

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밟고 해도 그 때문에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죽어 가는 것을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 먹을 것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동포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 무능한 정권과 내전으로 인해 굶주린 이디오피아인들과 르완다인들에게도 조건없이 우리는 도와 주었다. 하물며 우리의 동포가 굶주린다는데 어찌 외면할수만 있는가. 국가기구의 지원도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OECD에까지 가입한 남한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 하는가 라며 모금에 냉담하다고 한다. 만에 하나 지금

시기를 놓쳐 정말로 수백만명의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지난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민족적인 재난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후 북한동포들이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어려울때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지난 반세기동안 갈등과 증오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나 어려운 북한주민들을 돕고 고통을 나누는 이 운동을 통해서 갈등과 증오는 애정과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동포들을 돕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고 전쟁의 위험을 막는 길이다.

최근 중국 연변 조선족들 사이에 나도는 이야기로는 자포자기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전쟁이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지난 3월 6개중단과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등 2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범국민 옥수수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나서자 화답하듯 민간단체의 대북식량지원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잠수함 사건 이후 냉각되었던 우리사회의 북한식량난 지원문제를 공론화 한 것이다. 참으로 올바른 결단이었다고 본다.

다. 그러나 민간단체에만 북한식량지원문제를 맡겨놓아서는 될일이 아니다.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려워도 굶어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을 도울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옥수수와 밀가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약 4천억원이면 올해 북한의 기아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큰 액수다. 그러나 작년 경기도 북부지역의 수해때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 돈이 8천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는 아니라고 본다. 또 작년 한해 음식쓰레기로 버린 양이 8조원이라는 데 4천억원은 그 20분의 1밖에 안되는 돈이다.

정부는 지금 북한을 4자회담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4자회담이 실현된다고 해서 당장 평화가 오고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당장 죽어가는 우리동포들을 못본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한 원하는 것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와 오고 그리고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이다. 4자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동포가 다 죽고난 뒤에 식량지원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돕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가 식량지원을 시급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식량지원을 무기로 강압적으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이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이제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학내 북한동포돕기 현황

경희에 가득한 겨레사랑

22일 범 경희인 운동본부 발족

학내 모금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직접적인 불씨를 당긴 계기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7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앞 마당과 매점에서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이들은 '북한동포들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는 소모임을 결성하고 단순한 모금운동이 아닌 비디오 상영과 대자보전전, 유인물 배포 등을 병행해 학생들이 쉽게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7일부터 열이틀동안 이들이 모은 금액은 모두 1백29만3천80원. 물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열람석수가 1천 4백여개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학생 한사람당 천원씩 낸셈이다. 모임의 한 구성원인 김 종현(국문 90)씨는 "비디오를 제때 들어야 했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서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벚꽃구경 온 주민들이 모금에 참가 한다면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자기 또래의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동전을 넣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2주간의 활동은 바로 총학생회의 북한 동포 돕기 사업으로 이어졌



▲서울캠퍼스 도서관 앞에 마련된 모금현황판

다. 총학생회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겨레 사랑 북한 동포돕기 자주경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운동과 점심 한끼 굶기 운동, 옥수수죽 판매, 경희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97 경희 봄 대동제 우리민중 서로돕기 문화공연' 등을 기획, 활동 중이다.

수원 총학생회도 겨레 사랑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동인원 확보를 위해 3000여명 회원모집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회 간부10만원 모금운동과 일반학우 일주일 한끼 굶어 천원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노조와 의료원노조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북한 동포돕기 운동에 열심이다. 대학 노조는 조합간부는 1인당 5만원 성금내기를 실시하고 쌀 한말 보내기 운동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서명 운동, 정부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성명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원 노조는 조합간부 1인당 5만원성금내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사진전 비디오 상영,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와 민주 동문회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과별 1인당 만원 모금운동과 다음달 9일 열린 교수 학생 한마당에서 북한 수해 비디오 상영, 모금운동 전개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주동문회는 전국 대학 민주 동문회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진행하며 동문들에게 치료용지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경희 민주단체 협의회와 우리신문, 호텔전문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경희 학원 겨레 사랑 운동본부'를 결성했다는 사실이다. "효율적인 모금운동을 위해 경희가족 전체가 하나로 뭉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운동본부는 박정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장을 본부장으로 지난 22일 발족식을 가졌고 5월 한달동안 "1억원 모금을 목표"로 이번 주 중에 1인 3000원 모금을 위한 선전전과 봉투트누어 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운동본부의 활동과는 별도로 각단 체들의 개별적인 활동은 계속된다.

겨레사랑의 열기가 어느때 보다 뜨겁다. 남녘의 열기가 온기가 되어 북녘동포들의 추운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졌으면 좋겠다.

(최수정기자)

PC

통신원

이유없는 홍대생 살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필요

지난 4월3일 이태원의 버거킹 햄버거 가게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미국인에 의해 온몸이 흉기로 난자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통신에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살해된 조종필(홍익대 전과공학과 93학번)군은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착실한 모범생이었다고 한다. 그날 조종필은 이태원에 사는 여자친구를 배려해 주는 길이었다. 잠시 이태원에 있는 버거킹에 들려 여자친구에게 음식을 시키게 한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참사를 당했다. 살해혐의로 검거된 에디 리(18)와 피터슨(17)은 현장검증에서 확인되었듯이 아무런 이유없이, 전혀 시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의 조종필을 잔인하게 칼로 난자했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이들 두 범인이 6개월 후엔 미국으로 옮겨져 자유롭게 풀려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행법(한미행정협정)상 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판 및 형사

처벌을 받아도 6개월후엔 미국측에서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보석이나 정신착란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PC통신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통신원들의 의견들 중엔 각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홍보로 범국민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키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ID : blueleon, emotionz 등)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측에 시위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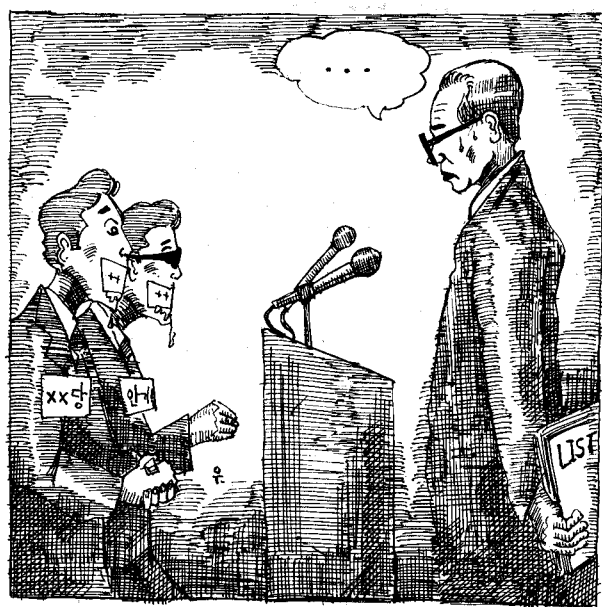
이미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에서 4천명이 넘는 통신원들이 통신서명을 한 상태다. 또한 홍대학생 및 시민들도 4천명 이상이 가두서명을 하였다. 이 서명서를 미대사관에 제시하며 범인의 '신병인수요구 포기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단순히 '재미'로 사람을 살해한 이들 미국인에 대한 처벌문제는 기존의 미군범죄 처벌과 같이 끝나기엔 너무나 큰 불만의 소리가 남아있다.

(최용섭 기자)

고향만평

김진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삼성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21세기를 정복하는 힘은 무엇인가?



알렉산더 Alexander(B.C. 356~323)
20세의 약관으로 세계정복의 길에 올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대왕. 그의 힘은 막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통솔력이었다.



정기스칸 Jhngis Khan(1167~1227)
몽골족의 위만 벽지에서 태어나 13세기 혼돈의 유라시아를 통일, 세계를 손에 넣은 정복왕. 그의 힘은 유목 기마군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동력이었다.



나폴레옹 Napoleon(1769~1821)
지중해의 작은 섬소년으로 유럽 전역을 장악한 정복영웅. 한 시대를 개편한 그의 힘은 앞선 구성력과 행동력, 그리고 혁명적 내재능력이었다.



21세기를 정복하는 힘은 바로 정보력- 정보화에 앞서는 자가 미래의 정복자! 캠퍼스 정보화로 미래를 앞서간다.

캠퍼스 정보화는 21세기 한국의 경쟁력! 삼성전자 C&C가 활짝 열어드립니다.

남보다 앞선 정보력으로 키워가는 캠퍼스 경쟁력— 바로 미래의 백년을 장악할 국가 경쟁력의 초석입니다. 지금, 캠퍼스 정보화시대를 앞당겨가는 삼성전자 C&C의 정보통신제품으로 21세기 지구촌의 주역이 되십시오.

앞서가는 제품력

- No.1 컴퓨터, 삼성 매직스테이션
- 캠퍼스형 노트북PC 센스 아카데미
- 통합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훈민정음
- 한국지형에 강한 휴대용 애니콜 디지털

든든한 지원 시스템

컴퓨터 무료교육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지원 등 캠퍼스에 정보파워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C&C 정보화 솔루션 - 효과적으로 캠퍼스정보화를 뒷받침합니다.

캠퍼스 경쟁력, 삼성전자 C&C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

C&C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ec.co.kr>
• PC통신(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 GO SEC